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소외로서의 monologue의 의미가

반영된 현대인 이미지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용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조연정

인 준 서

조연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한 만 영 인

심사위원 이 춘 옥 인

심사위원 윤 종 구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인간성의 상실과 소외현상에 대한 회의는 오늘날 미술에서 중요하고 심각한 주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느끼는 단절감이나 고립감이 심화될수록, 많은 예술가들은 소외와 단절이 야기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고통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본인의 작업은 진실함과 인간성이 상실된 현대인에 대한 연민으로 시작되었다.

경쟁을 요구하는 현실은 상대방을 위기의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며, 타인과 진실한 소통을 나누고자하는 인간의 본질을 방해한다. 본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현대인은 타인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 허울뿐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거짓과 위선의 언어로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저마다의 혼잣말인 독백' 혹은 '대화로서 위장된 독백'을 하고 있다.

본인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심리적 도피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옷을 매개로 현대인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즉, 본인이 작품에서 실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세계의 구체적 대상으로서의 옷이 아니라, 현대사회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피하려는 인간의 위장된 표상으로서의 옷이며 인간의 외피로서의 그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본인의 작품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소외로서의 독백(獨白, monologue)의 의미가 반영된 현대인 이미지 연구'라는 주제로 제작된 본인의 작품을 연구한 것으로 총3장으로 구성되어진다.

제1장 서론에서는 예술과 인간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는 ‘monologue’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구성과 표현을 시도한 본인의 작품을 내용적 분석과 조형적 분석으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고찰하였다.

1. 내용적 분석에는 작품 주제와 관련하여 소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였으며, 소통으로서의 미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본인과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제작된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을 예로 제시하였고, 본인의 작품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작품의 제작 동기와 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소재로 선택된 옷과 옷걸이의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2. 조형적 분석에는 주제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연극적으로 화면을 연출하였음을 설명하였고, 공허함을 강조한 소재의 표현과 무거운 주제와 상반되는 밝은 색채와 리듬 있는 붓 자국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14점의 작품들을 개별적인 내용과 더불어 조형적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며 본인 작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작업방향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4
1. 내용적 분석	4
1)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소외의 의미	4
2) 소통으로서의 미술	6
3) 작품의 제작 동기 및 주제	14
4) 소재 선택의 의미	17
(1) 오브제와 상징성	17
(2) 옷과 옷걸이의 의미	19
2. 조형적 분석	23
1) 주제의 역설적 표현	23
2) 연극적 요소의 도입	24
3) 소재 표현	25
4) 색채와 붓 자국	27
3. 작품 분석	29
III. 결론	45

참고문헌

참고도판

ABSTRACT

I. 서 론

예술은 인간의 잠재된 생각이나 느낌을 아무런 통제 없이 표현해 낸 것으로써 인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반영한다. 또한 예술이란 시대상의 반영이며 작가의 현실을 상징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해낸 결과이자 산물이다. 예술작품은 인간의 감정을 순화시키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도 한다. 예술작품이 지닌 메시지는 그것을 감상하는 관람자에게 전이되어 유사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교감을 만들어내는 예술작품은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세상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본인은 그림을 통해 본인의 감정과 고민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이해와 위로를 얻고 세상과의 진실한 소통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미술을 통한 내면의 표출을 반복하는 것이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는 본인의 시각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인간에게 있어서 예술은 내면의 감정을 치유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진실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경쟁과 위기의식이 만연한 현대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고 소외당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상대와의 진정한 소통을 간절히 원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그것은 소외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질이 소통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인이 바라보는 현대인은 타인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는 가식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허울뿐인 대인관계를 만드는데 집착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된 대화에 익숙하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으며, 본인 자신의 반추이기도 하다. 본인은 소외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거짓으로라도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모습에 연민을 느끼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본인은 현대인의 모습에서 마르틴 부버의 ‘대화로서 위장된 독백’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고, 연극무대에서 monologue(獨白, 독백)하는 배우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였다. 본인은 옷과 사물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거나 재구성하여 연극적인 화면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시각언어를 가지고 독백을 하는 배우로써 옷을 등장시킨다. 옷이라는 배우의 공허하고 조용한 독백은, 진실한 대화를 나눌 상대를 찾는 현대인의 외침과 같다. 그 외침은 내면에 있는 여러 감정과 생각을 외부로 표출하고 타인과의 소통을 시도하고자 하는 본인의 독백인 동시에 모든 현대인의 독백일 것이다.

본인이 실제 그리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일상적 사물로서의 옷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거나 감추는데 적절하게 사용되는 심리적 도피를 위한 도구로서의 옷이다. 옷은 과시하고자하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는 가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상황과 필요 그리고 감정에 따라 바뀌 입을 수 있는 옷은, 진실함이 사라져 텅 비어버린 인간의 위장된 표상과 다름없다.

본 논문은 ‘소외로서의 monologue의 의미가 반영된 현대인 이미지 연구’라는 주제 아래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인은 2003년에서 2008년 동안에 걸쳐 다양한 구성과 표현을 시도한 본인의 작품을 내용적 분석과 조형적 분석으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내용적 분석에는 현대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소외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소외를 두려워하는 현대인에게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미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미술에서 다뤄진 인간소외와 소통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며, 그와 관련된 예를 제시하고 본인 작품의 내용적 측면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작품의 주제인 monologue에 담긴 연극에서의 ‘독백’의 의미와 마르틴 부버의 ‘대화로서 위장된 독백’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작품의 제작 동기는 타인과의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관계 맺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작품에서 등장하는 소재는 본인의 주관적 관념이 부여된 대상물로서 그것이 가진 상징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옷은 인간의 위장된 표상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내고, 옷걸이는 현실도피의 매개체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2. 조형적 분석에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역설적인 표현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모순이 발생시키는 긴장감을 유발하고자 했음을 서술하였다. 작품 안에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현대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소통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극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작품의 주제를 무대, 배우 등의 극적 요소를 도입하여 연극의 한 장면 같은 화면으로 연출했음을 언급하였다. 소재의 표현에 있어서는 실체가 아닌 허상의 의미를 가진 옷을 여러 번 중첩시켜 흐리게 하고 빛을 이용해 사라지게 함으로써 공허함을 강조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색채와 붓 자국에 있어서는 현대인의 소외와 소통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환상적이고 밝은 색채와 리드미컬한 붓 자국들을 이용해 대조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음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점진적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14점의 작품들을 제작 동기와 내용 및 표현방법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작품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II. 본 론

1. 내용적 분석

1)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소외의 의미

물질문명의 팽창으로 인하여 사회적, 심리적 변화에 노출된 인간은 소외라는 현상을 겪게 되었고, 그것은 사회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오늘날의 사회는 성취를 요구하여 구성원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서로를 위기의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소외현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으로부터 위화감과 괴리감을 느끼도록 했으며, 인간을 비인격화 시켰다.

소외(疏外, alienation)란, 일반적으로는 사귀이 멀어진 상태이며 좁은 의미로는 정신 착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프로이트학과에서는 문화기구에 대한 개인의 적응장애로서 ‘개성의 해체’의 한 특징으로 보며, 철학에서는 자기소외의 뜻으로 사용하는데 자기가 자기의 본질을 잃은 비본질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일컫는다.¹⁾

소외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체계화 한 것은 독일의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이며,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준 선구자로서 대표적인 학자는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과 포이에르바하(L. Feuerbach, 1804-1872)이고, 마르크스의 소외개념을 현대적으로 재발견한 학자들로서는 루카치(Georg Lukacs, 1885-1971)와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를 들 수 있다.²⁾

1) <http://100.naver.com> 네이버백과사전

2) R.터커·A.샤프 외, 「현대소외론」, 조희연 편역, 참한문화사, 1983, p.87~111

헤겔은 근대 문명의 비판적인 의미에서 소외 또는 자기소외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헤겔은 말하기를 “소외란 개개인이 품고 있는 ‘뿌리가 없는 듯한’, ‘의지할 데 없는 듯한’, 감각이나 무목적성, 실체(實體)상실의 감각”이라고 정의하였다. 헤겔은 자기 소외의 행위를 자기의 객관화라고 이해하고, 소외를 주체로부터 객체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헤겔에게 있어 현실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정신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했고 따라서 소외를 정신과 관련시켰다. 표상(表象) 또는 ‘객관적 정신’의 여러 형식은 그들을 만들어 낸 것들로부터 독립한다. 따라서 그것들은 그로부터 소외된 것이 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창조물인 예술작품이나 철학, 종교, 과학 따위 속에서 자신을 상실하고 소외된 -정신적으로 현실성을 갖지 않은-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리하여 소외로부터 하나의 적극적인 가치를 추출해 낼 수 있는데 즉 소외는 모든 것을 인간에게 있어서 객체로 만들뿐만 아니라 정신이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여정(旅程)의 필연적이며 불가결한 단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³⁾

포이에르바하는 종교적 미신과 물신주의(fetishism)현상에서 소외의 근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⁴⁾ 그는 신이란 인간의 가장 주체적이고 고유한 본질이 분리되고 추출된 것이라고 말한다. 신이 더 주체적이고 더 인간적일수록 인간은 더욱더 자기의 주체성과 인간성에서 소외된다. 왜냐하면 신이란 것은 인간의 자기가 소외된 것이기 때문이다.⁵⁾ 그는 모든 사상사를 인간정신의 점진적인 각성의 역사로 보고 기독교에서의 신이 편협한 신에서 보편적인 신의 개념으로 변화되려면 소외나 자기 소외이라는 비판적 도구를 통해 신학을 인간학으로 대체하고 신을 폐위하고 인간을 즉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소외를 극복하는 방법은 신성(神聖)을 인간에게로 복귀시켜 인류애와 자

3) Arnold Hauser, 「예술과 소외」, 김진욱역, 종로서적, 1981, p.127~130

4) R.터커·A.샤프 외, 「현대소외론」, 조희연 편역, 참한문화사, 1983, p.92

5) 정문길, 「소외론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78, p.47

애를 통하여 인간자신을 재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초기에 헤겔의 사상을 받아들였지만 관념론을 유물론으로 대체 하면서 창조력의 소외로부터 생산력의 소외로 바뀌놓았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소외되고 자아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주로 노동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소외는 정신이라는 어떤 철학적 추상적 개념에 있지 않고 사유재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⁶⁾ 노동의 과정에서 인간은 타인의 지배, 강압, 그리고 속박 하에 놓이게 된다. 이렇듯 인간은 타인의 사용대상이 되고 노동이 상품화됨에 따라 자신의 정체감을 상실하였으며, ‘자신의 자아’에 대한 의식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마르크스는 소외의 가장 중요한 징후인 - 자본주의 시대의 기계화와 분업의 결과로서 상품으로 변질된 노동생산물이 띠고 있는- ‘기분 나쁜 객관성’을 인정하고 있다.⁷⁾

루카치는 마르크스 사상에서의 소외개념을 현대적으로 재발견 하였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간은 유산계급이든 무산계급이든 모두 자기소외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로부터 탈출하는 길을 이데올로기(ideology) 비판에서 찾고 프롤레타리아의 실천적 입장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막스 베버는 소외의 개념을 ‘관료제화’의 개념과 융합하였는데, 그는 모든 사회가 중앙집권적인 대규모 조직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러한 조직 속에서 개인은 별로 중요치 않는 존재로 평가된다고 주장한다.⁸⁾

2) 소통으로서의 미술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의 부족에서 비롯된 소외는 인간에게 불안감, 공포감, 소외감 등의 감정을 갖게 한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간관계를 원하도록 하였고, 타인과의 소통을 시도하게 하였다. 소통

6) 권지혜, 「소외 심리의 회화적 이미지에 대한 연구」,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7

7) Arnold Hauser, 「예술과 소외」, 김진옥역, 종로서적, 1981, p.135~136

8) R.터커·A.샤프 외, 「현대소외론」, 조희연 번역, 참한문화사, 1983, p.105~108

(疏通)이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으므로 사전에서 정의된다.⁹⁾

본인은 커뮤니케이션의 종류 중에, 언어를 제외한 메시지를 일컫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감정을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 중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의 정보를 표현하는 등 의미들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¹⁰⁾ 이러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예로 가장 보편화 된 것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의미를 이해하는 시각언어이다. 대표적인 시각언어의 예로는 광고, 포스터, 브로슈어, TV, 영상 등이 있다. 본인은 미술작품 또한 시각언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상징화된 언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즉, 미술은 소통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다음에서 다른 작가들이 소외와 소통의 문제를 작품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예를 제시하고자 하며, 본인의 작품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인간의 고독과 불안을 표현한 대표적인 화가는 노르웨이의 20세기 초 표현주의 미술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 1863-1944)를 들 수 있다. 뭉크가 그림을 그렸을 당시 사회는 과학의 부작용이 극에 달하면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인 빈곤이라는 상반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때문에 뭉크의 그림에서 보이는 불안과 고독은 내면세계의 반영인 동시에 사회에 대한 정신적인 영향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극도로 양식화된 암시적인 색채, 단순하면서도 강한 구도, 해골 같은 얼굴, 구불거리는 유동적인 선 등으로 존재에 대한 어려움, 병약 체험에서 오는 인간의 심리, 죽음에 대한 매혹 등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강렬하게 느꼈던 불안의 감정들을

9) <http://krdic.naver.com> 네이버국어사전

10) 유효숙, 「인터넷메신저 이모티콘의 디자인적 특성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33~34

감상자에게 그대로 전해준다. 뭉크가 그린 인간상 또한 스스로의 정신분열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 이면서 그 시대의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¹¹⁾

뭉크의 작품 “불안(도판 1)”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군상(群像)이 등장한다. 공허한 듯한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그들은 무언가를 묻고 대답을 기다리는 듯하다. 그것은 본인의 [작품 1]과 [작품 2]에서 ‘무엇을 향해, 어디로 가야할지’를 묻고 있는 자화상의 눈빛과 유사하다. 배경으로 보여 지는 저녁 노을은 다홍빛의 붉은 색으로 불안과 고뇌를 표현한 것인데, 본인 또한 작품에서 뭉크의 색감과 유사한 붉은 계열의 색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작업 당시 본인은 시각적으로 강한 느낌을 전달 하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색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마치 뭉크가 그랬던 것처럼, 현실에서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던 본인의 무의식이 선택한 색채가 아닐까 생각된다.

독일의 표현주의 화가이자 판화가인 에른스트 루트비히 키르히너(Ernst Ludwig Kirchner, 1880-1938)는 인간소외현상을 작업한 화가로 삶의 급속한 변화와 도시 생활이 인간에게 병폐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자연적 삶을 동경한 작품을 제작한 대표적인 화가이다. 그는 인간이 밀집해 있는 현대 도시의 거리 풍경을 주로 제작하였는데 관례적인 도시의 초상이 아니라 모호한 분위기를 지닌 인물들을 통해 현대도시의 변덕스럽고 번잡한 생활과 에로틱한 고립감을 주관적으로 표현하였다. 도시의 삭막함과 인간의 표정 없는 얼굴 표현을 위해 뾰족한 대각선을 여러 번에 걸쳐 사용하여 인간을 날카롭게 변형시켰다. 그는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표정을 형태의 완성보다는 개인의 내면 심리를 기초로 작업을 완성한 것이다. 그의 작품들은 당시 베를린 사회에서의 인간 소외 현상을 주관적으로 그리고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사회의 부패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11) 양지원, 「현대사회의 인간소외에 관한 조형적 표현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15

의미를 지닌다.¹²⁾ 또한 키르히너는 날카로운 선과 포물선의 곡선을 대조시키고 강렬한 원색을 한데 어우러지게 결합시킴으로써 조형양식 자체로 작품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다섯 명의 거리의 여인들(도판 2)”에서 번잡한 거리의 사람들은 옆에 그리고 함께 있지만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제각기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하다.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고립된 모습이자 소외된 모습일 것이다. 본인 또한 키르히너와 유사한 시각으로 본인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그러한 감정을 담아낸 것이 본인의 작품 [작품 1]과 [작품 2]이다. 현실에서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본인이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군중속의 자화상으로 표현하였다.

인간의 소외 현상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화가로는 미국의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1882-1967)를 들 수 있다. 그는 생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불안감과 개인이 느끼는 고립감을 표현한 작가이다.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장면들은 작가의 주관적 관념이 아닌 객관적인 상황 그대로를 제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그는 인간을 배경보다 작게 그리거나 고개를 숙이게 표현하여 인간의 소외감을 표현하였다. 특히, 입체적인 묘사와 무대 조명과 같은 인위적인 빛의 선택에서 오는 느낌은 사물이나 상황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는 인간을 멀리하는 대신 인간환경에 그의 경험을 대체하였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인간소외의 감정을 표현하였다.¹³⁾

그의 작품 “Hotel Room(도판 3)”은 쓸쓸하고 체념한 듯한 모습의 여인을 묘사함으로써 도시인의 소외와 고독 그리고 공허함을 잘 표현해내고 있다. 본인은 [작품 7]에서 왜소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본인의 자

12) 양지원, 「현대사회의 인간소외에 관한 조형적 표현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17

13) 양지원, 「현대사회의 인간소외에 관한 조형적 표현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19

화상을 등장시켰는데, 그것은 호퍼의 그림에서 본 여인의 모습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 정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한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인물은, 외부와의 단절된 상태임을 암시하며 본인이 처해있는 현실의 상황을 외면하려하는 심리상태를 나타낸다.

조지 시겔(George Segal, 1924-2000)은 일상적인 내용을 주제로 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의 다양한 행위와 작업의 솔직한 형상화를 통하여, 현대 도시 환경과 문명 속에서의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설정하고 있다.¹⁴⁾ 또한 조지 시겔은 그의 작품 안에 무질서가 만연한 현대 사회의 단면과 그에 따른 인간소의 현상을 자신의 사회적 의식과 함께 나타내고 있다. 석고의 고유색인 흰색으로 표현한 조지 시겔의 석고 인물상은 도시 문명과 인간 존재에 대한 연민을 표현한다. 그의 실물 주형(Life Casting)기법은 외관적 특징과 행동으로 그것이 사람임을 나타낸다. 하지만 사람을 덮어 씌어 영원히 내부에 감금한 형상은 그것을 보편적인 인물 또는 단순한 사물로 인식되어 지게끔 했다. 이것은 대중소비사회의 어두운 현실반영의 측면에서 인간의 물개성화와 보편화된 가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그의 작품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물체가 상황 속에 존재하듯 그렇게 존재할 뿐이다.¹⁵⁾

본인은 단순한 사물처럼 표현한 조지 시겔의 인물상이 본인이 그린 옷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본인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옷으로 인간의 부재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조지 시겔의 실물 주형기법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의 허물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의 작품 “건너시오, 건너지 마시오.(도판 4)”에서 보여 지는 도시인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연출한다. 현대 기계문명의 지시를 기다리며 무표정한 얼굴로 신호등 앞에 멈춰서 있다.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가 아닌 선택되어지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으며 인간의 주체성 상실에 직면한 인간의

14) 김춘일, 「Pop Art와 현대인」, 열화당, 1979, p.52

15) 김광우, 「위홀과 친구들」, 미술문화, 1997, p.82

모습을 담은 것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석고로 제작된 무표정한 인물상에서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짙은 고독이 느껴진다. 그가 표현하고 있는 인물들은 언제나 분명한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며, 그 상황의 서술성을 드러내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또 다른 그의 작품 “네 개의 벤치에 앉은 사람 (도판 5)”을 보면, 휴식을 상징하는 벤치가 본래의 의미를 잃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고립되고 삭막한 느낌만을 전달하고 있다. 이는 곧 도시문명 속에서 인간성 상실이란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조지 시겔은 현대 문명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경시되는 현대사회 인간들의 고독과 우수를 표현하였고, 사실적인 3차원의 형태로 대중 앞에 그 형상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관람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그리고 일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의 작품을 바라보며 관람자는 감정을 이입하게 되고 정신을 일깨우게 된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상실되어 있는 인간성의 회복을 촉구시키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¹⁶⁾

로버트 롱고(Longo Robert, 1953-)는 미국을 대표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로 현대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조절 당하면서도 그 막강한 힘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익명화된 인간을 표현했다. 그는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인들이 돈, 권력, 명예와 같은 출세지향주의와 속물주의를 추구하며 경쟁과 실패의 반복으로 인간의 감정이 수시로 변하는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버트 롱고의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정치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성격을 강하게 표출하여 그 시대의 문화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작업들은 복잡한 사회 내에서 개인의 소외와 불안한 상황에 대한 저항과 심리적인 고뇌, 즉 실존문제에 대한 전형적인 묘사라고 해석 할 수 있겠다.¹⁷⁾ 그의 작품에서 온몸을 비틀고 있는 사람은 춤을 추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두

16) 김지태, 「소외된 인간상 표현」,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 7~9

17) 김지태, 「소외된 인간상 표현」,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 13~15

려움에 대한 저항인지, 아니면 단순한 행동에 불과한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형상화되어 실제 사람보다 확대되거나 왜곡된 모습으로 작품에 나타나게 된다.

그의 작품 “도시의 인간(Men in the Cities)(도판 6)”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형상을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익명의 인간의 모습 보여준다. 그는 그 형상들을 “불운한 영혼들(Doomed Soul), 타락한 천사들(Fallen Angels)”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현실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인간상을 나타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¹⁸⁾ 로버트 롱고의 작품에 나타나는 모든 주인공들은 자아 분열적이거나 일탈적 이면서 굴절된 인간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작가의 자화상이며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에 찌든 현대인들의 소외와 갈등, 냉소, 인간관계, 무력감, 익명성 등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연출된다.¹⁹⁾ 로버트 롱고의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정치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성격을 강하게 표출하여 그 시대의 문화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작업들은 대중문화 속에 이미지의 탐구를 표현하고 있으며, 복잡한 사회 내에서 개인의 소외와 불안한 상황에 대한 저항과 심리적인 고뇌, 즉 실존문제에 대한 전형적인 묘사라고 해석 할 수 있겠다. “대기업 전쟁들-권세의 벽돌(도판 7)”은 롱고가 뉴욕 증권 거래소의 풍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데, 검정색 추상물은 뉴욕의 사무용 건물을 상징한 것으로, 미국의 고정된 권력과 경제적 영향권, 정치적 체계와 미국인의 가치관을 상징한다. 중앙 화면의 알루미늄 판은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여 30개가 넘는 드로잉으로 도시의 사무실 이미지를 표현한 것인데, 그것은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광란의 소유와 탈출의 격투를 벌이는 형상을 하고 있다. 그러한 인물들은 혼자 고립되어 다른 것과 거리를 두고 그 주위를 선회하는 듯

18) 이은경, 「Contemporary Art에 나타난 인간 형상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40

19) 전두인,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소외에 대한 은유적 표현 연구」, 홍익대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19

보이며, 이는 경쟁사회 속에 도시인의 실상을 표현한 것이다.²⁰⁾

이렇듯 경쟁사회 속의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한 로버트 롱고와 같이, 본인 또한 전쟁과 같은 현실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을 [작품 6], [작품 8], [작품 9]에 담아내고 있다. 그러한 인간은 목표와 지향점을 상징하는 옷걸이를 잡기위해 또는 놓치지 않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는 본인의 자화상이며 현대인의 모습이다. 인간의 군집 속에 있지만 고립되고 소외된 감정을 느끼는 인물을 보여주는 방식 또한 본인과 유사하다. 그리고 로버트 롱고가 현대의 인간을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형상으로 표현한 것은, 본인이 현대사회에서 대량생산되고 있는 기성품 중의 하나인 옷으로 인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박서보(1931-)는 <유전질(도판 8, 9)> 연작을 전개하면서 그의 작품군 중에 다소 이례적인 <허상과 실상> 연작을 거치게 된다.²¹⁾ 유전질에서 허상으로 이어지는 작품군은 전통적인 색채를 활용하여 기하학적인 패턴과 구조적인 단면을 가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밝고 논리적인 정서가 두드러진다. 분명한 색띠에 의한 구성의 유전질과 속이 비어있는 인체와 색띠를 절충한 허상시리즈는 초기의 원형질이나 후기의 묘법시리즈에 비해 일반적으로 덜 알려진 편이다.²²⁾

본인은 진실과 거짓, 내면과 외면 같은 눈에 보이기도하고 숨겨지기도 하는 현실의 상황과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실재와 허상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본인은 [작품 3], [작품 4], [작품 5]에서 옷을 매개로 하여 허상과 실체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는데, 그 형상은 박서보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과 매우 닮아있다. 그의 작품 “유전질”을 보면, 인간의 형태를 한 옷만이 남아있는 형상이거나 이목구비를 생략한 실루엣만의 모습으로 그것이 인간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그림은 사회적 인습과 약속된 규범 등의 외부의

20) 김지태, 「소외된 인간상 표현」,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 14

21) 이견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 월간미술, 2002.1, p. 79

22) 오광수, 「박서보의 에스키스-드로잉」, 오광수-드로잉 서문, 2006

세계가 인간의 내면으로까지 밀려들어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 진다. 외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조차 소외당하고 있는 현대의 인간의 모습을 박서보는 형상의 무의미함으로 표현한 듯하다. 그의 작품속의 그것은 인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기도 하며, 타인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위장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다.²³⁾ 본인의 작품에서의 옷은 인간성과 진실함을 상실한 인간의 위장된 표상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박서보의 유전질, 허상과 실상 시리즈의 인간 또한 본인이 표현한 옷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3) 작품의 제작 동기 및 주제

본인은 작품의 주제인 'monologue'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연극에서 배우의 대사인 '독백(monologue)'으로서의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의 '대화로서 위장된 독백(monologue)'의 의미이다.

우선 연극에서의 monologue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onologue(독백, 獨白)란, 연극에서 등장인물이 특정의 상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대사가 아닌 혼자만의 극(劇)의 대사로, 자기 자신이나 특별히 어떤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고 관객을 상대로 하는 표현으로써, 관객에게 극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인식해야한다.²⁴⁾

본인에게 있어 독백을 하는 연극배우는, 그 독백의 내용에 상관없이 무척이나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기억된다. 거대한 무대 위에 혼자서 있다는 것이 그렇고, 어떤 대화 상대도 없이 혼잣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 본인은 이러한 연극배우의 모습이 현실을 외롭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23) 유지현, 「실루엣에 의한 내면의식의 표현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 10

24) <http://100.naver.com> 네이버백과사전

유사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런 의미에서의 monologue를 본인 작품의 주제에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마르틴 부버가 주장하는 ‘대화로서 위장된 독백(monologue)’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부버는 대화의 유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중의 첫 번째가 대화로서 위장된 독백(monologue)이다. “각자는 타인에게 진실로 말을 걸지 않은 채 이야기 한다. 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는 실제로 타자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 즉 각자는 단지 그 자신에게 말하려고 한다. 따라서 각각 그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 자신에게 말하기 위해 타자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린다. 이것이 독백이며, 거짓대화이다.”²⁵⁾

본인은 부버가 말한 것과 같이 진실함이 사라진 거짓대화로서의 monologue의 의미를 작품에 담아내고자 했다. 경쟁과 갈등이 만연한 현실에서 우리는 거짓과 가식의 언어로 저마다의 독백을 하고 있으며, 본인 또한 타인과의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두려워 여전히 독백하고 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은 분명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실재이다. 하지만 소외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본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인간으로 위장된 표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저마다의 혼잣말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한 허상과 다름없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고, 본인 자신의 반추이기도 하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고 소외당하게 만드는 현실은, 상황과 필요에 의해 형성된 삭막하기 그지없는 대인관계를 만들어 냈다. 인간이 가식과 거짓으로 포장된 대인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소외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25) 연혜진, 「마르틴 부버의 “대화”교육학의 신비주의적 의미」, 감리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34

때문일 것이다. 본인은 이렇듯 허울뿐인 대인관계에 집착하는 현대인의 모습에 동정심을 느끼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본인은 전쟁과도 같이 삭막한 현실에서 존재의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꼈고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외로움을 경험했다. 또한 가식과 위선, 시기와 질투로 본인을 바라보는 주위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그들을 경쟁과 위기의식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혹하리만치 냉정한 현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본인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얼마만큼 열어 보일지 계산하고, 지나친 경계와 의심으로 본인 스스로를 주변으로부터 고립시켰다. 눈에 보이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하는 이 같은 현실의 상황들은 본인으로 하여금 진실과 거짓, 내면과 외면과 같은 실재와 허상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현실에서 본인은 상대방에게 허상의 존재가 아닌 인간성과 진실성을 가진 실질적 존재로 다가가기 위해 애쓴다. 실질적 존재가 되해 본인은 내면의 감정과 고민을 그림으로 솔직하게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다가가고자 했다. 그림으로써 상대방이 본인을 이해하고 위로해주길 바랐으며, 외부와의 단절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고민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우리 내면의 상처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했다. 본인의 그림 즉 본인의 상처를 누군가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면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극복할 누군가를 원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허상이 아닌 실재로, 즉 진실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갈 원한다는 것이며, 타인과의 소통을 시도한다는 것과 같다.

본인은 그림을 통해 혼자만의 독백이 아닌, 본인의 내면과 상대방의 내면의 만남, 즉 타인과의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진심을 숨기는 모습에서 벗어나, 솔직한 본인의 참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 때 진실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만남은 진정한 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기에, 본인은 타인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해 그림을 창조하고 그것을 통해 진실한 소통을 나누고자 한다.

마르틴 부버는 “진정한 대화가 없는 곳에 창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대화적 삶, 대화적 사유, 대화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나와 너가 영향을 주고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창조적 기능을 갖게 되며, 대화를 통해 이해에 도달함으로써 소외 또한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²⁶⁾ 또한 마르틴 부버는 대화의 세 가지 유형 중 세 번째에서 진정한 대화(genuine dialogue)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각자는 정체성을 지닌 채 대화에 참여하고 책임 있는 신념으로 타자에게 응답한다. 각자는 타자의 현존재를 인정하고, 상호관계를 확립하여 상대에게 ‘동의’가 아닌 ‘응답’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대화가 연극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²⁷⁾

본인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도 진정한 대화(genuine dialogue)를 나누기 위함이다. 본인은 현대인의 소외와 고독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본인 내면의 소외로 인한 상처를 표출하고 그것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그림을 통해 타인과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진정한 대화를 시도하고자 하며, 그들과 함께 내면을 치유하고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한다.

4) 소재 선택의 의미

(1) 오브제와 상징성

본인은 소재에 대한 인식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사물을 본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실질적 형태만으로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상적 관념이 전이된 변형된 상징물이라고 본다. 또한 특정한 사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가 주관적 상상이나 상징에 의해 다른 어떤 것의 형상으로도 보여 질 수 있으

26) 신보경, 「현실(現實)속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시대적 자화상」,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36

27) 연혜진, 「마르틴 부버의 “대화”교육학의 신비주의적 의미」, 감리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34~35

며, 그 의미 또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옷과 옷걸이라는 오브제를 차용하여 본인의 감정을 이입하고, 주관적인 대상물으로써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본인 작품에서 보여 지는 소재와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이전에,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브제와 상징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라틴어 오브젝툼(Objectum)이 어원인 오브제는 일반적으로 객체(客體) 또는 대상(對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오브제에 대한 사전(辭典)적인 정의는 대개 ‘보여지거나 만져지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인식되는 것, 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과 주체가 인지할 수 있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인 것’을 의미한다. 즉 사전 속의 오브제에 대한 정의(定意)는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물건, 물체라는 뜻과 인식 주체의 인식대상으로서의 정신적인 것을 포함한 대상 객체라는 뜻을 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순 객관적 존재로서의 물체가 심리적 효과에 의해 주관의 심부에 작용하여 자기와 관계를 맺게 될 때 오브제는 이미 일상의 가치로부터 이탈한 상태로 그것 안에 또 다른 형상(形狀)의 의미로 내포하게 되고 그것이 곧 예술작품으로 전화(轉化)되어지는 경우 이 물체를 우리는 ‘오브제’라 부르게 된다. 즉, 물체가 지니고 있는 단순한 이미지의 대상화²⁸⁾ 작업이 아닌 그 물체 밖에서 직관(直觀)하여 내보여지는 작업을 거침으로써 물체에 대한 일상적인 인식의 상태를 넘어서 차원(次元)을 달리한 새로운 재인식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대상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자각(自覺)에서 태어난 것이 오브제인 것이다.²⁹⁾

상징(象徴, symbol)이란, 그 성질을 직접 나타내는 기호(sign)를 매개로 하

28) 대상화(對象化); 어떠한 사물을 일정한 의미를 가진 인식의 대상이 되게 함. 자기의 주관 안에 있는 것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구체화하여 밖에 있는 것으로 다룸.
<http://krdic.naver.com> 네이버국어사전

29) 성세정, 「오브제를 이용한 현대 조각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4~5

여 다른 것을 알게 하는 작용을 가진 것으로서, 인간에게만 부여된 고도의 정신작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³⁰⁾ 그것은 ‘하나의 심상(心象)과 하나의 관념(觀念)을 어떤 유사성(類似性)을 토대로 연결시키는 방법이며 그 결과(結果)’가 된다. 일반적으로 ‘상징’이라 할 때는 하나의 관념을 어떤 구체적인 대상물(對象物)을 통하여 나타내는 방식을 일컫는다.³¹⁾ 또한 상징은 인간이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고 사용하는 인위적인 표식인 기호이며, 예술 역시 전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예술에서 사용되는 상징적 표현 방법은 작가의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더 많으며 주관적 표현을 가능케 한다.³²⁾

본인 역시 예술작품 안에서 본인의 주관적 감정과 관념을 객관적 형상인 소재를 빌어 나타내고자 하였다. 즉, 본인 작품 안에서의 옷과 옷걸이는 단순한 사물의 재현이 아닌 주관이 투사된 상징적 오브제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고를 유발시키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내포한다. 본인은 다음에서 소재를 선택한 이유와 그것에 담고자 했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일반적 사물이 상징적 오브제로 변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2) 옷과 옷걸이의 의미

① 인간의 위장된 표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옷

옷의 사전적 의미는 몸을 싸서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피륙 따위로 만들어 입는 물건³³⁾으로 정의 되어진다. 인간이 옷을 입는 목적은 정숙성, 장

30) <http://krdic.naver.com> 네이버국어사전

31) 강노라, 「현대회화에 나타난 상징성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3

32) 송일섭, 「표현적 색채표현의 내면세계 표출 연구」, 한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17~18

33) <http://krdic.naver.com> 네이버국어사전

식성, 보호성으로 연구되어 있다. 정숙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간이 최초로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은 나체와 관계되는 수줍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신을 장식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장식성은 자신의 미를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인상을 관리하여 다양한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며, 실제로 자아의 확장, 신분 등이 표현된다. 옷을 입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자연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데 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옷의 보호성을 신체를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보호기능도 있다고 한다.³⁴⁾

옷을 통해 우리는 성별, 나이, 직업, 사회·경제적 위치, 결혼 여부, 특별 단체나 조직의 소속관계, 태도, 흥미, 가치관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옷은 신분을 상징하고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며, 집단 혹은 개인 문화 그리고 업무 혹은 관계 위주의 문화에 대한 동조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옷은 한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을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다. 옷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는지를 보여주며, 욕망과 환상과 가치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 벌의 의상을 갖춰 입는 행동은 그 사람의 미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우리의 몸은 만족스러운 자화상을 그려내기 위해 다양한 재질과 색깔을 입히는 하나의 캔버스이다.³⁵⁾

또한 옷은 언어를 제외한 메시지를 뜻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분류 중에 대상언어와 오브제 언어에 속해진다. 대상언어는 대상물의 의도적 혹은 드러내는 표시와 사람들이 가졌거나 드러내는 물건들을 통하여 그 사람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이 추정될 수 있게 전달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자동차, 가구, 집 그리고 의복의 착용 방식이나 신체자체도 포함된다.³⁶⁾ 오브제 언어(object language)는 개인의 치장이나 주변을 꾸미는 데 사용되는 ‘물건’으로 다양한 의미를 전해준다. 물질의 차원에서 부호화하여 메시지 교환을

34) 강혜원, 「의상사회 심리학」, 교문사, 1984, p.22~39

35) 김우룡, 장소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론」, 나남출판, 2004, p. 408

36) 이석주, 「신체 언어와 의사전달」, 국어교육101,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0, p.74

가져오는 건축양식과 실내장식, 조명상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³⁷⁾

하지만 옷이 가진 본래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오늘날과 같은 문명사회에서 옷이 갖는 가치는 변화되었다. 본인에게 있어서 옷을 입는 근본목적은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집단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함에 있다. 옷은 본인의 내면을 드러내거나 감추는데 적절하게 사용된다. 옷은 과시하고자하는 본인의 욕망을 드러내주기도 하고, 들키고 싶지 않은 속마음을 감추기 위한 가면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본인이 옷을 바꿔 입는 것은 필요와 감정에 따라 그리고 현실의 상황에 유리하게 대처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의 관점에서 현대인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여 가식과 위선, 그리고 거짓으로 치장하고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며 경쟁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듯 진실함이 없는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허탈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한 감정이 본인으로 하여금 인간을 허상의 존재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옷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다. 본인은 어느 날 문득 본인이 벗어놓은 옷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인간이 벗어놓은 허물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안이 텅 비어있는 옷은 본인으로 하여금 인간성이 상실되고 진실함이 사라진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본인이 실제 그리고자 하는 것은 현실세계의 구체적 대상인 옷이 아니라, 진실함이 사라져 텅 비어버린 인간의 위장된 표상으로써의 옷이다. 즉, 본인은 진실함이 사라진 인간은 허상이라고 생각하고 안이 텅 비어버린 옷으로 표현하게 된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옷은 본인의 자화상이기도 한 동시에 본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인물들의 형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인의 작품 [작품 3]은, 왼쪽으로는 인간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 그대로

37) 김우룡, 장소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론」, 나남출판, 2004, p. 436

를 표현한 것이고, 오른쪽은 옷걸이만 남겨둠으로써 인간의 실체가 사라진 상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두 가지 상태를 대비시키면서, 눈으로 보기에 인간의 실재적 형상은 존재하지만 진실함이 부재하므로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4~9] 또한 인간의 위장된 표상으로서의 옷이며, 그것은 본인 혹은 본인 주변 인물의 모습이다. [작품 10], [작품 11]에서 실체가 빠져나가 공허한 듯한 느낌을 주는 옷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작품 12~14]는 본인의 자화상으로써 본인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함께 바라보도록 하였다.

② 현실 도피의 매개체로서의 옷걸이

본인의 작품 안에는 소외된 인간의 표상으로 표현된 옷과 함께 옷걸이가 등장한다. 옷걸이는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본인의 심리를 강조하는 매개체가 된다. 옷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소재로 옷걸이를 선택하였고, 그것은 가늘고 흰, 또는 낡고 구겨진 형태로 표현되었다.

[작품 6~8]은 고독과 소외가 만연한 현실에서 지치고 나약해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 9]에서는 답답하게 쌓여진 옷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옷걸이를 잡고 있는 인간의 손을 그린 것이다.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인간은 무언가에 기대고 의지하고 싶어 한다. 본인은 옷걸이를 인간이 기댈 수 있는 또는 붙잡고 싶어 하는 무언가로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그것에 집착하는 애처로운 인간의 모습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작품 11]에서의 옷걸이는 새로운 옷 다시 말해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인간을 위해 남겨둔 빈자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빈 옷걸이는 감상자를 위한 자리로 비워둔 것이기도 하다.

2. 조형적 분석

1) 주제의 역설적 표현

본인은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모순을 발생시키는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해 역설적인 표현방법을 사용하였다. 역설(逆設, paradox)은 어떤 주어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로,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³⁸⁾

본인의 주제인 ‘monologue’는 앞서 작품의 제작 동기 및 주제의 구체적 표현에서 언급했듯이, 연극에서 배우의 대사인 ‘독백(monologue)’의 의미와 마르틴 부버의 ‘대화로서 위장된 독백(monologue)’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극대사로서의 ‘독백’을 본인은 어떻게 역설적으로 표현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배우는 독백을 할 때, 굉장히 조용하고 고요하게 객석을 보며 혼잣말을 한다. 그리고 관객은 무대 위 배우의 작은 소리에 집중하며 귀 기울여 듣게 된다. 이렇듯 배우의 잔잔한 독백은 관객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오히려 더욱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하여 본인은 현대인의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와 외침을 본인의 그림 안에서 옷이라는 배우의 공허하고 조용한 독백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두 번째, ‘대화로서 위장된 독백’의 역설적 표현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화로서 위장된 독백이란 진실함이 사라진 거짓 대화를 의미하며, 대화가 연극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본인은 현대인의 대화와 삶이 연극적 - 남을 속이기 위해 꾸며낸 말이나 행동, 배우가 사건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주는 무대 예술- 이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연극적으로 연출된 화면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38) <http://krdic.naver.com> 네이버국어사전

2) 연극적 요소의 도입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인의 주제인 monologue는 연극적인 의미를 다소 포함하고 있고, 또한 본인은 그것을 표현하는데 있어 연극적인 연출방법을 사용하였다. 본인은 관객이 배우에게 자신을 대입시켜 볼 수 있고 극의 상황을 자신의 현실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하는데 연극이 굉장히 적합하고 효과적인 장르라고 판단하였다. 본인은 본인의 감정과 메시지를 본인의 의도대로 관객에게 충분히 전달함으로써 관객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 하여 연극적 요소를 본인의 그림에 도입하였다. 본인은 옷과 사물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거나 재구성하여 연극적인 화면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시각언어를 가지고 독백을 하는 배우로써 옷을 등장시킨다. 즉, 연극의 한 장면 같은 그림을 만들어 낸 것이다. 본인은 연극적 화면을 연출해 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극적 요소를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한다. 그것은 공간적 제약, 배우의 등장, 그리고 무언의 소통이다.

첫 번째 공간적 제약은 다음과 같다. 연극의 특성상 그리고 공연의 편의와 집중도를 위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제약을 받게 된다. 본인은 작품의 화면을 연극의 무대라 생각하고 그것을 누군가의 방이나 옷장 안, 혹은 한쪽 벽면 등으로 제한하여 표현하였다. 그렇게 제한된 공간 안에, 옷을 포함한 모든 시각적 요소들에게 그곳에 위치해야만 하는 함축적이고 필연적인 이유를 부여하여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무대이자 화면으로 재구성 하였다.

두 번째는 배우의 등장이다. 연극 속의 배우는 연극 전체의 그 어떤 것보다 거대한 힘을 가진다. 배우는 대사, 표정, 손짓 하나하나에 수많은 관객의 관심을 받으며, 극의 내용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인은 본인의 연극무대 위에 옷이라는 배우를 등장시킨다. 그러한 옷은 인간을 대신하여 행동을 하고 표정을 지으며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세 번째는 무언의 소통이다. 연극은 배우의 연기나 작가의 의도, 또는 감독의 연출을 통해 극의 내용을 관객에게 전달한다. 하지만 본인은 연극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지거나 설명되어 지는 것 이면에 존재하는 관객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객의 몫으로 남겨진 연극에 대한 이해와 감동의 정도가 배우, 작가 그리고 감독의 의도와 일치했을 때, 본인은 연극과 관객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진정한 소통은 본인이 그림을 통해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림을 그리는 궁극적 이유이기도 하다. 극의 연출가, 배우, 작가가 자신의 의도를 담아 만들어낸 연극으로 관객과 소통하듯이, 본인 또한 그림에 본인의 의도를 드러내어 감상자와 소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인은 소통하고자 하는 본인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객을 작품에 집중시키기 위해 연극처럼 연출된 화면을 만들어낸다. 같은 이유로 여러 장르에서 연극적 연출을 시도하는 것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영화 ‘더 게임’³⁹⁾은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모든 상황이 벌어지며, 캐릭터가 확실한 두 주인공이 등장하고 시대에 대한 풍자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연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퓨타’⁴⁰⁾는 하늘 위의 떠다니는 섬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시대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무한한 상상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극적 우수성이 탁월하고 볼 수 있다.

3) 소재 표현

본인은 진실함이 사라진 인간의 모습을 옷을 매개로 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진실함이 사라진 인간이란 무형의 정신적인 것은 빠져나가고 유형의 신

39) 윤인호 감독, 「더 게임(The Game)」, 신하균, 변희봉 주연, 스릴러영화, 한국, 2007

40)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천공의 성 라퓨타(Laputa: Castle In The Sky)」, 판타지 모험 애니메이션, 일본, 1986

체만 허물처럼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안이 텅 비어있는 옷은 인간성과 진실함이 부재한 인간의 표상으로써 공허함을 강조한다. 공허(空虛)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다 또는 실속이 없이 헛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⁴¹⁾ 본인은 공허한 느낌으로 옷을 표현하기 위하여 비움과 지움 그리고 흐림과 겹침, 빛을 이용한 날림 등의 기법으로 사용하여 옷의 형상을 모호하게 한다. 옷의 형상이 모호해 진다는 것은 정확하고 분명한 사물의 틀이나 경계가 없어진다는 것이며, 그것은 사물의 실체와 본질이 그리고 그 사물에 반영된 어떠한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

본인의 [작품 4]와 [작품 5]에서는 옷을 입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되 인간의 신체부분은 비우고 옷의 실루엣만으로 그것이 인간의 형상임을 표현하였다. 그것은 옷을 남겨두고 인간의 신체가 빠져나간 상태임을 보여주며, 인간의 실체는 사라지고 허물만 남아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작품 12~14]은 물감이 흥건한 붓으로 대강의 형태만 나타내고 부분적인 묘사로 옷을 표현하였다. 큰 붓의 움직임은 본인에게 있어 물감을 바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물의 형태와 그 안에 담긴 무언가를 지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물 본래의 형태는 물감의 흐름과 동시에 없어져 버릴 것 같지만, 옷의 장식은 치밀하고 꼼꼼한 묘사로 정확한 형태를 유지하며 남아있다. 그것은 인간 자체 또는 진실 된 인간으로써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인간의 가식과 위선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본인이 [작품 6], [작품 7]과 [작품 11]에서 옷들을 보여주는 방식은 들리고 겹쳐지게 나타냄으로써 실체가 점점 사라지듯 뿌옇게 흐려지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것은 물감을 얇게 바르고 큰붓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며 같은 옷을 여러 번에 걸쳐 덧그려서 만들어낸 그림이다. 이같이 중첩시켜 표현한 심층과 표층의 옷은 구체적인 이미지를 해체함으로써 ‘사라지는 것’에 대한

41) <http://krdic.naver.com> 네이버국어사전

허무함을 강조한다.

[작품 10]과 [작품 11]은 밝은 빛이 옷에 투사되어 옷의 정확한 형태를 흐트러뜨린다. 빛의 흠어짐과 동시에 옷의 형태도 흠어지는데, 마치 옷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4) 색채와 붓 자국

본인은 주제를 나타내는데 뿐만 아니라 색채를 선택하고 붓질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설적인 표현방법을 사용하였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색채와 붓 자국의 역설적 표현방법이란, 화사하고 밝은 색채와 가벼운 붓터치로 형성된 리듬을 통하여 다소 어둡고 무거운 주제를 서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방법에 있어 본인은 지슬라브 벅진스키의 영향을 받았다.

폴란드 화가인 지슬라브 벅진스키(Zdzislaw Beksinski, 1929-2005)는 제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그의 작품(도판 10) 곳곳에서 위기감, 상실감, 절망감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인간의 형상을 왜곡시키거나 전쟁으로 인한 파괴, 황량한 도시의 이미지, 에로틱한 주제 등을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파스텔과 연필을 주로 사용한 드로잉은 인간의 형상을 왜곡시킨 것이 대부분이며, 그가 추구한 추상적 구조는 그의 정신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드로잉과 페인팅, 플라스틱 재료의 사용, 철판 조각과 석고 부조를 제작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물성이 변형되어 자유로운 형태로 표현된 것에 그치지 않고,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대지의 죽음, 황량한 도시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1950~1960년대의 작품은 볼펜과 잉크를 사용한 것이 많은데, 주제가 매우 에로틱하고 생생하다. 피부의 파괴를 통해 뼈와 살이 분리되는 신체가 분해되는 과정도 묘사하였다. 이러한 벅진스키의 은유법은 대부분 삶의 단조로움을 표현한 것이며, 그가 나타낸 에로틱한 꿈과 상상력의 세계는 ‘환시 미술’이란 독특한 장르를 구축하였다.⁴²⁾

백진스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인물과 사물 등의 모든 소재들은 영혼과 육신이 사라지고 형상만이 남아있는 듯하다. 또한 그의 작품은 영원히 잠들어 버린 인물과 풍경들을 멀리서 관조하며 그려낸 듯한 느낌을 준다. 그는 죽음의 광경과 인체라는 거대하고 심오한 주제를 묘사하는데 있어,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색채와 가볍게 중첩되어지는 선적인 터치로 표현하였다. 백진스키의 그러한 표현방법은 주제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그렇게 만들어낸 작품은 스산하게 소름끼치면서도 아름답고, 부서질듯 하면서도 단단해 보였다. 이렇듯 극과 극 다시 말해 이중적인 느낌이 동시에 전달되는 것이, 본인에게는 묘한 매력과 알 수 없는 끌림으로 다가왔고, 본인 또한 그러한 방법을 본인의 작품에 시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백진스키에 작품에 매료되었던 본인은 무의식중에 또는 의식적으로 그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그것이 본인의 색채와 붓질에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은 작품 안에 다양한 색을 담아내고자 하지만, 파스텔 톤과 난색 계열의 색채를 특히나 많이 사용한다. 그것은 [작품 2]와 [작품 6]에서 뚜렷하게 보여지며, 그 외의 작품 [작품 7]과 [작품 11]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듯 부드럽고 따뜻한 색채는 고립되고 소외된 인물의 형상이나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손의 표정 등으로 표현한 본인의 차가운 주제와 대비되어 그것들을 더욱 강조한다.

또한 본인은 본인의 작품 [작품 10]과 [작품 11]에서 볼 수 있듯이, 작고 가벼운 붓 자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경직되고 무거운 주제와 상반되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붓 자국들은 빛의 흐름을 보여주는 동시에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어두운 내용의 주제를 반대되는 표현으로 보여준 것이다.

42) <http://100.naver.com> 네이버백과사전

3. 작품 분석



[작품 1]



[작품 2]

[작품 1] <군중속의 자화상 I> 2003. 130×162.1cm. oil on canvas

[작품 2] <군중속의 자화상 II> 2003. 130×162.1cm. oil on canvas

[작품 1] 군중속의 자화상 I

[작품 2] 군중속의 자화상 II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고 소외당하게 만드는 경쟁사회는 본인에게 존재의 상실감과 허탈함,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게 했다. 또한 가식과 위선, 시기와 질투로 서로를 경쟁과 위기의식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비롯된 작품이 2003년에 그려진 군중속의 자화상 I, II이며, monologue 시리즈의 제작 계기가 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바쁘게 지나쳐가는 사람들 속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정면을 응시하는 인물의 모습은, 불안하고 삭막한 현실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본인의 자화상이다. 본인은 무관심하게 지나쳐가는 사람들의 무리 안에서 방황하며 서 있다. 감상자를 향한 본인의 시선은 ‘무엇 향해, 어디로 가야할 지’를 묻고 있다.

[작품 1]을 완성한 후 아쉬운 점을 보완하여 [작품 2]를 제작하였다. 따라서 [작품 1]과 [작품 2]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조형적 측면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인다.

[작품 1]은 밤의 거리이며 사람의 움직임이 조명 빛에 의해 흔들려서 포착되었다는 점이고, [작품 2]는 낮의 거리이고 사람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두세 번 겹쳐주어 흔들림의 효과와 강한 빛에 의한 날림의 효과를 더해 주었다는 데에 있다. 이렇듯 [작품 2]에서 흔들림과 겹침, 날림의 효과를 더해 준 이유는, 실체가 사라지는 듯한 모호한 상황으로 연출하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이며, 두 번째는 주변 인물들을 뿌옇게 함으로써 뒤돌아 선 본인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함에 있다.

[작품 1]과 [작품 2]에서 빛은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그것은 시선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하고 앞과 뒤의 공간감을 내주는 역할을 한다. 시선은 빛의 방향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다가 오른쪽 중하위에 위치한 인물에 멈추게 되는데, 주변 색감의 명도와 채도를 낮추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자화상을 강조하였다.



[작품 3]



[작품 4]



[작품 5]

[작품 3] <실체와 허상> 2004. 가변크기. oil on canvas and wire

[작품 4] <the girl> 2004. 90×90cm. oil on fabric

[작품 5] <people> 2004. 130×162.1cm. oil on fabric

[작품 3] 실체와 허상

[작품 4] the girl

[작품 5] people

본인은 서로를 가식과 위선으로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마치 진실한 내면은 사라지고 거짓의 외피만이 남아있는 인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같은 현실은 본인으로 하여금 진실과 거짓, 내면과 외면과 같은 실체와 허상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본인은 [작품 3], [작품 4], [작품 5]에서 옷을 매개로 하여 허상과 실체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다. 그것은 실재의 인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허상을 의미한다.

눈에 보이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하는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던 본인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작품이 [작품 3]이다. [작품 3]은 페인팅한 캔버스에 철사로 만든 옷걸이를 부착시킨 작품이다. [작품 3]은 인간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옷을 사이에 두고, 캔버스 위로는 옷을 입고 있는 인체의 손을 그려 넣었고, 다른 한쪽은 인체가 사라지고 빈 옷과 옷걸이만 남겨진 상태를 나타냈다. 이 같은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실체와 허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표현했으며, 과장된 사이즈로 제작하여 실재하는 인간이지만 그것은 허상과 다름없다는 본인의 생각을 강조하고자 했다.

[작품 4]와 [작품 5]는 인체는 빠져나가고 인간의 형태를 간직한 옷만이 그것이 인간이었음을 나타낸 채 덩그러니 남아있다. [작품 4]에서 인간의 형상을 완전히 지우고 인간의 실루엣이 남아있는 옷만을 보여주는 방법을 시도했는데, 옷의 표정만으로도 인간의 심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데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하여 [작품 5]는 마치 상황극의 한 장면처럼 연출했다. 두 사람은 한 의자에 앉아있지만, 서로에게 무관심한 듯 서로 다른 곳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것은 인간의 위장된 표상에 불과하고, 또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 하고 있지만 그것은 혼잣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3~5]는 외부세계(배경)와 인간내면(인체부분)을 하나로 합쳐서 검정 혹은 흰색의 단색으로 채색하였는데, 그것은 여백의 의미로 형상이 돋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준다.



[작품 6]



[작품 7]



[작품 8]

[작품 6] <monologue I> 2003. 150×180cm. oil on canvas

[작품 7] <monologue II> 2004. 160×192cm. oil on canvas

[작품 8] <monologue III> 2004. 160×192cm. oil on canvas

[작품 6] monologue I

[작품 7] monologue II

[작품 8] monologue III

monologue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한 것이 [작품 6]이며, 그 뒤로 [작품 7]과 [작품 8]을 연작으로 제작하였다. 본인의 작품 [작품 6~8]은 [작품 1]과 [작품 2]의 발전된 형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군중의 모습 대신 옷을 등장시킨 것이다.

본인이 실제 그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 사물로서의 옷이 아니라, 심리적 도피를 위한 인간의 위장된 표상으로서의 옷이다. 옷은 인간성이 상실되고 서로에게 허상의 존재일 뿐인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것은 본인의 주위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며, 본인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즉 본인은 안이 텅 비어있는 옷을 매개로 하여 진실함이 사라진 인간을 나타내고자 했으며, 허무함과 공허함을 강조하고자 했다.

옷의 질감과 유사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 굵은 울의 캔버스 천을 선택하였고, 바람과 빛이 통과할 듯한 얇고 비치는 옷의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린시드를 묽게 섞은 유화물감을 발랐다. 물감이 마르기 전에 큰 붓으로 문지르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중첩된 심층과 표층의 옷들은 구체적인 이미지를 해체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무의미함을 강조한다. 겹쳐짐과 번짐의 정도로 묘사와 밀도를 조절하면서, 옷들 간의 미세한 거리의 차이를 주어 화면 안에 공간감을 만들어내고 시선의 흐름을 유도해냈다. 또한 파스텔 톤과 난색 계열의 색을 주로 사용하여 다소 어둡고 무거운 주제와 대조적으로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로 표현하였다.

주변의 옷들과는 달리 인물들은 정확한 형태를 유지하고 사실적 묘사로 이

투어진다. 또한 인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강한 빛을 받아서 분명한 명암과 그림자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감상자의 시선을 중심인물로 집중시킴으로써 인물의 존재성을 강하게 인식시키고자 한 것이다.

[작품 6]은 자화상 대신 인체의 부분만을 화면에 그려 넣었다. 얼굴은 가려지고 손과 발만 보이는 인체는 감상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입시켜 볼 수 있도록 의도했다.

[작품 7]에서는 왜소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등장시켰다. 정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한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인물은 본인의 자화상으로, 외부와의 단절된 상태와 현실의 상황을 외면하려는 심리상태를 나타낸다. 제각기 다른 모양새와 높낮이를 하고 있는 옷들이 분산되고 산만해 보이지 않기 위해, 본래의 옷이 지녔던 다양한 색을 제거했다. 베이지 계열의 통일된 색감으로 표현함으로써, 흩어져있는 옷들이 균집을 이뤄 화면에 일체감이 생겨나도록 했다.

[작품 8]에서는 발뒤꿈치를 들고 옷걸이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담았는데, 그것은 목표 또는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 경쟁하고 애쓰는 본인의 자화상이자 현대인의 모습이다. 빛을 받는 부분만 묘사를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색감을 열게 하여 어두운 배경에 묻힌 듯이 표현하였다.



[작품 9] <the closet_옷장> 2008. 120×120cm. oil on canvas



[작품 10] <monologue IV> 2007. 112.1×162.1cm. oil on canvas



[작품 11] <monologue V> 2008. 130×162.1cm. oil on canvas

[작품 9] the closet _ 옷장

[작품 10] monologue IV

[작품 11] monologue V

[작품 9]는 [작품 6]이나 [작품 8]의 부분을 클로즈업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작품 9]는 답답하게 쌓여진 옷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옷걸이를 잡고 있는 인간의 손을 그린 작품으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본인 또는 현대인의 의지를 강하면서도 애처롭게 보여주고자 했다. 답답하고 숨 막히는 현실을 쌓여진 옷들이 가득한 옷장으로 표현했으며, 옷더미 안에 여느 옷과 다름없이 함께 파묻혀 있는 인간의 손이 목표물인 옷걸이를 힘겹게 움켜잡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했다. 인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어둡게 처리하고, 강하게 움켜진 손과 그에 의해 일그러진 형태의 옷걸이였다면 극적 긴장감을 더욱 강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다.

[작품 10]은 정물대 위에 힘없이 걸쳐져 있는 옷의 모습이다. 그것은 현실의 상황에 지쳐서 쓰러진 현대인의 모습과 같으며, 잠시 쉬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역광의 밝은 빛이 옷과 정물대에 투사되어 정확한 형태를 흐트러뜨리면서 마치 옷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공허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작품 11]은 바람에 흔들려서 중첩되어 보여 지는 옷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정확한 실루엣을 벗어나 실체가 사라지듯 표현하여 형상의 무의미함을 강조했다. 또한 [작품 11]에서의 빈 옷걸이는 새로운 옷 다시 말해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누군가를 위한 자리로 기다림과 비워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품 10]과 [작품 11]에서는 빛에 의해 옷의 가장자리가 화면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 된다. 빛의 흠어짐과 동시에 옷의 형태도 흠어지는데, 그것은 형상의 사라짐을 의미한다. 또한 빛의 흐름을 표현하는 화사한 색채의 가볍고 리드미컬한 붓 자국들은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작품 12]



[작품 13]



[작품 14]

[작품 12] <the nit_니트> 2007. 72.7×90.9cm. oil on canvas

[작품 13] <the blouse_블라우스> 2007. 72.7×90.9cm. oil on canvas

[작품 14] <the nit_니트> 2007. 72.7×90.9cm. oil on canvas

[작품 12] the nit _ 니트

[작품 13] the blouse _ 블라우스

[작품 14] the nit _ 니트

[작품 12~14]은 본인의 옷을 정면으로 등장시켜 자화상의 개념으로 표현하였고 동일 사이즈의 캔버스에 시리즈로 제작하였다. 본인이 즐겨 입는 옷을 그리는 것은 본인의 모습을 그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고 감상자와 같은 시각으로 본인 또한 그것을 다시 바라보고자 하였다.

[작품 12~14]은 옷의 형태를 물감이 흥건한 붓을 이용하여 드로잉 하듯 그려주고, 장식적인 부분은 집중적으로 묘사를 해주었다. 본인에게 있어 큰 붓의 움직임은 물감을 바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물의 형태와 그 안에 담긴 무언가를 지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물 본래의 형태는 물감의 흐름과 동시에 없어져 버릴 것만 같다. 본인은 물감이 흐른 흔적으로 옷의 형태를 흐트러뜨림으로써 인간 자체 또는 진실 된 인간으로써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와 반대로 [작품 12~14]에서 옷의 장식은 치밀하고 꼼꼼한 묘사로 정확한 형태를 유지하며 남아있다. [작품 12]에서는 줄무늬가 있는 프릴이, [작품 13]에서는 자수로 놓인 꽃무늬가, 그리고 [작품 14]에서는 흰 레이스가 장식적 요소로 보여지고 있다. 장식이란 본래 꾸미고 치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간이 자신을 화려하고 과장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한다. 본인은 장식적 요소를 분명하게 남김으로써 인간의 가식과 위선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Ⅲ. 결 론

예술은 인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반영함으로써, 인간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해소하며,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세상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결고리가 된다. 예술이 인간 그리고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성을 근간으로, 본인은 소외로 인한 현대인의 상처를 예술작품에 반영하였다. 그러한 예술적 표출을 통해 타인과 교감하고 소통하며 그들과 함께 자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작업과정의 반복으로 세상 그리고 타인과의 진실한 소통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인은 ‘소외로서의 monologue의 의미가 반영된 현대인 이미지 연구’라는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였고, monologue에는 마르틴 부버의 ‘대화로서 위장된 독백’의 의미와 연극에서 배우의 대사인 ‘독백’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본인은 현실이 가식과 위선, 시기와 질투, 경쟁과 위기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끼고 현실로부터 본인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소외시켰다. 본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허상과 같이 인식되는 존재로 인간의 위장된 표상과 다름없었다. 본인은 인간성이 상실되고 진실함이 사라진 현대인의 모습을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옷을 매개로 하여 표현하였다. 즉, 본인이 실제 그리고자 하는 것은 현실세계의 구체적 대상인 옷이 아니라, 현대사회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피하려는 인간의 근본적 본질의 수단으로서의 옷이며 인간의 외피로서의 그것이다. 또한 본인은 연극적 요소를 도입하여 화면이라는 무대 위에 옷을 연극배우로 등장시키고, 역설적인 색채와 붓 자국들로 주제와 소재를 부각시켰다.

본인은 내면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고민을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이해와 위로를 얻고자 했으며 외부와의 단절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또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우리

내면의 상처를 함께 바라보고자 하였다. 본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허상이 아닌 실재로, 즉 진실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갈 때 타인과의 진실한 소통을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예술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이 논문을 통하여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제작한 본인의 작품들을 되돌아보며, 주제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화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작업방향 또한 모색할 수 있었다. 본인은 본인 작업의 문제점으로 극적 긴장감의 부족과 억지스러운 화면설정, 그리고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소 산만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본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카라밧지오의 강렬한 명암법을 참고하여 극적 긴장감의 부족을 해소하고, 소재를 재구성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장면을 그림으로써 화면의 억지스러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또한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고전주의 등의 여러 사조가 섞여 있는 듯한 표현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발전시키면서 내면의 감정을 더욱 솔직하게 드러내고 극대화 할 수 있는 본인만의 기법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인은 본 논고에서 본인의 작품이 예술 그 이상의 것을 넘어서 소통의 다리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는 본인의 입장을 서술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예술이 본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림으로써 현실과 타인을 바라보는 본인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본인 그리고 본인의 작업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참 고 문 헌

- A. V. Ado외, 「윤리학 사전」, 백의 출판사, 1996
- 박승위, 「현대사회와 인간소외」,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6
- Arnold Hauser, 「예술과 소외」, 김진욱 역, 종로서적, 1981
- R.터커·A.샤프 외, 「현대소외론」, 조희연 편역, 참한문화사, 1983
- 정문길, 「소외론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78
- 이재창 외저, 「인간이해를 위한 심리학」, 문음사, 1995
- 김우룡, 장소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론」, 나남출판, 2004
- 김춘일, 「Pop Art와 현대인」, 열화당, 1979
- 김광우, 「위홀과 친구들」, 미술문화, 1997
- 방근택, 김인환, 「세계미술대사전IV」, 한국미술년감사, 1992
- 마광수, 「상징 시학」, 철학과 현실사, 2007
- Ernst Fischer, 「예술이란 무엇인가」, 김성기 역, 서울: 돌베개, 1984
- 이석주, 「신체 언어와 의사전달」,
국어교육101,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0
- 강혜원, 「의상사회 심리학」, 교문사, 1984
- 이건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 월간미술, 2002.1
- 오광수, 「박서보의 에스키스-드로잉」, 오광수-드로잉 서문, 2006
- 마르틴 부버, 「나와 너」, 문예출판사, 1987
- 박지은, 「인간 소외 현상을 모티브로 한 반지 조형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준목, 「상징화된 언어의 시각적 재현과 소통 가능성에 대한 연구」,

- 홍익대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권지혜, 「소외 심리의 회화적 이미지에 대한 연구」,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소미화, 「현대사회의 소외로 인한 주체상실로서의 자해」, 서울산업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신상현,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사용자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와 특성 모델화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유효숙, 「인터넷메신저 이모티콘의 디자인적 특성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양지원, 「현대사회의 인간소외에 관한 조형적 표현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지태, 「소외된 인간상 표현」,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은경, 「Contemporary Art에 나타난 인간 형상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전두인,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소외에 대한 은유적 표현 연구」, 홍익대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유지현, 「실루엣에 의한 내면의식의 표현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연혜진, 「마르틴 부버의 “대화”교육학의 신비주의적 의미」, 감리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신보경, 「현실(現實)속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시대적 자화상」,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성세정, 「오브제를 이용한 현대 조각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강노라, 「현대회화에 나타난 상징성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송일섭, 「표현적 색채표현의 내면세계 표출 연구」,

한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방인희, 「삶의 흔적으로서 일상적 사물 표현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http://100.naver.com> 네이버백과사전

<http://krdic.naver.com> 네이버국어사전

<http://endic.naver.com> 네이버영어사전

<http://blog.naver.com/ithink25>

<http://factorize.tistory.com/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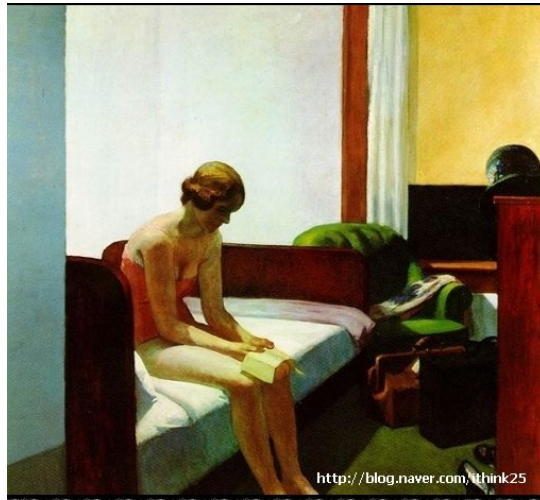
참 고 도 판



(도판 1)



(도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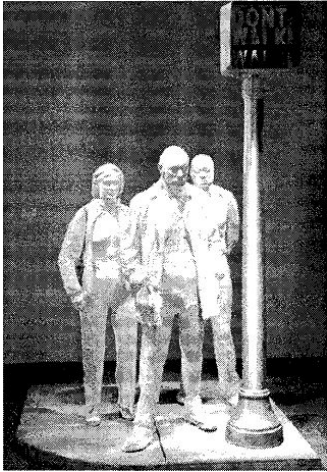


(도판 3)

(도판 1) <분열>, 에드바르트 뭉크, 93×72cm, oil on canvas, 1894

(도판 2) <다섯 명의 거리의 연인들>,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 126×90cm,
oil on canvas, 1913

(도판 3) <Hotel Room>, 에드워드 호퍼, oil on canvas, 1931



(도판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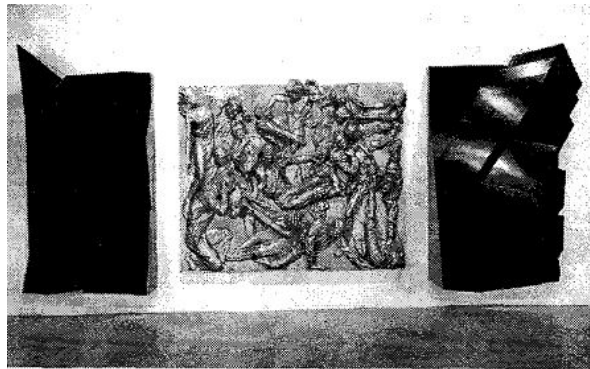
(도판 5)

(도판 4) <건너지시오, 건너지마시오>, 조지 시걸, 석고, 1966

(도판 5) <네 개의 벤치위에 앉은 세 사람>, 조지 시걸, 석고, 철제의자, 1979



(도판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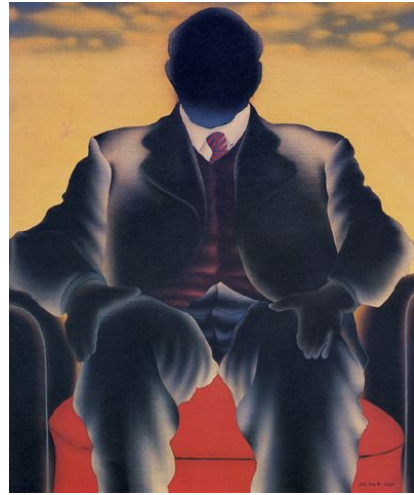
(도판 7)

(도판 6) <도시의 인간>, 로버트 룡고 , 종이에 흑연과 목탄, 1980

(도판 7) <대기업 전쟁들-권세의 벽돌>, 혼합재료, 1982



(도판 8)



(도판 9)

(도판 8) <유전질 No.9>, 박서보, oil on canvas, 1967~70

(도판 9) <유전질 No.15>, 박서보, oil on canvas, 1967~70



(도판 10)

(도판 10) <무제>, 지슬라브 백진스키, 88×92cm, oil on hardboard, 1987

ABSTRACT

A study about modern people's images reflected the meaning of monologue as alienation

- centering on the author's work -

Cho, Yeon Jeong

Dept. of Western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skepticism about loss of humanity and phenomenon of alienation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serious issues in modern art. Feeling more deeply a sense of alienation and isolation in modern society, many artists are willing to express human's psychological insecurity and agony resulted from alienation and disconnection through their own works. My study is started by feeling pity for modern people who lose the truth and humanity.

The competition in real life makes modern people regard others as the object of a sense of crisis and interrupts the nature of anyone willing to share real communication with others. In my opinion, modern people are struggling to have plausibl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disguise themselves with false and double-faced

words in order not to be alienated from others. Although they definitely have opportunities to talk with others, they perform 'a monologue pretended as soliloquy' or 'a monologue disguised as communication' with indifference for each other.

I express modern people's images through clothes that can be an instrument for psychological escape in modern society. In other words, to truly express is not clothes as the concrete object in real world, but clothes as the disguised symbol of modern people who avoid being alienated in modern society and clothes itself as the outer cover.

I have studied my own works since 2003 and intended to incorporate my works and thoughts in my study. Therefore, I am trying to find ways for possibilities and potentialities of growth in modern art. This paper consists of three parts and the subject is 'A study about modern people's images reflected the meaning of monologue as alienation'.

In the first chapter as an introduction, I present the purpose and method of this study based on art-human relations.

In the second chapter as the main subject, I study my works which have a try of various organization and expression in regard to the subject of 'monologue' and present in earnest by dividing them into the content analysis and the formative analysis.

1. In the content analysis, I present the theoretical background about alienation related to its subject and then state the art as communication. Examples are presented to compare my works with other works which have been made with similar subject. The motivation and subject of

works are also presented in the concrete. The meaning of clothes and hangers which are chosen as a subject matter is also stated.

2. In the formative analysis, it is presented that the subject is paradoxically emphasized and a canvas is theatrically directed. It is also about bright colors and rhythmical traces of a brush which are contrasted with the heavy subject as well as the expression of the subject matter emphasizing a sense of emptiness.

Finally, my fourteen works are described based on particular contents and formative factors.

In the third chapter as a conclusion, I summarize this paper and estimate my works objectively. Finally, I intend to find ways for my works of future.